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BEARMOUTH

가제 : 지하에 갇힌 아이들, 베어마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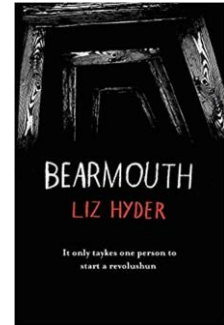
저자 : Liz Hyder

출판사: Pushki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1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영국 더 타임즈, 선데이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책, 영화화 예정.

\* '여태껏 읽었던 청소년 도서 중 가장 야심적이고 훌륭한 이야기이자 도발적인 서사시.' 『The Girl of Ink and Stars』의 저자,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

베어마우스에서 사는 삶이란 끝없는 고된 노동과 칠흙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 그 누구도 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인 메이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의 가혹한 노동의 대가는 현생이 아닌 다음 생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데블린'이라는 한 남자 아이가 이곳을 찾아오게 되고 뉴트는 그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비로소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소설은 작가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탄광에서 일했던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쓴 이야기이다.

태초에 신 메이커가 있었고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으며 자신이 창조한 모든 존재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 중 일부가 그를 배신했고 이에 화가 난 신 메이커는 그 배신자들을 지하 세계로 보내 평생 죄를 씻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언젠가 신이 진정으로 지하에 버려진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제서야 지하 세계 사람들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주기도문에 따르면 지하에서의 삶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그 자체였고 뉴트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믿으며 하루하루 힘든 삶을 버텨내고 있는 중이었다. 뉴트는 네 살이 되던 그 해부터 지하 탄광에 내려와 고된 노역을 시작했다. 이제 사춘기 소녀가 된 지금 역시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어른의 몫만큼 끝없이 일해야만 했다. 뉴트는 이곳에서 그 어떤 어른보다 재빠르고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어른이든 아이든 이곳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지하기숙사에 살면서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맛있는 죽으로 끼니를 겨우 때워야 했고 촛불, 잉크, 종이를 월급으로 받았고 때때로 운이 좋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병약할 수 밖에 없었고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

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지하 기숙사를 떠나 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마저도 꿈도 못 꿀만큼 엄청난 돈이 필요한 일이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뉴트는 이곳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뉴트보다 나이가 두 배나 더 많은 토마스는 뉴트에게 있어 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자 아빠 같은 든든한 사람이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날이었던 어느 월요일 맥주에 잔뜩 취해 뉴트가 자고 있던 침대로 기어올라온 해리슨이라는 남자를 쫓아준 토베스라는 고마운 친구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블린이라는 새 일꾼 소년이 지하 세계로 들어왔다. 오랫동안 새 일꾼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던 터라 뉴트를 포함한 이곳 사람들은 모두 그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의 등장으로 왠지 모르게 불안해진 뉴트는 더욱 열심히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여전히 데블린은 수상하게 굴었고 어느 날 뉴트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은 곧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혁명’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모르고 있었던 뉴트는 토마스에게 찾아가 그 단어의 의미를 물었다. 그러자 토마스는 주위를 살피더니 그런 단어는 절대 입 밖에 내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야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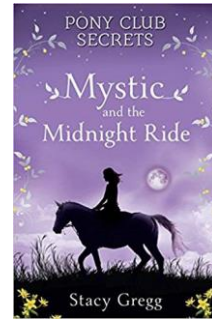
매주 일요일 ‘신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유일하게 이 곳 아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었다. 뉴트는 사람들 속에 섞여 다니며 토마스 근처에 가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의 열토당토 않은 말 때문에 자신이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배 중에도 계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의 시선을 차마 피할 수가 없었고 다들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서있는 그에게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뉴트는 그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성적인 관심까지 갖게 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베스가 왈시에게 맞아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왈시는 마치 사냥감을 찾아 이리저리 배회하는 사냥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살의를 채워주던 목표가 사라지자 점차 뉴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녀를 강간하려고까지 했다. 뉴트는 드디어 월경이 시작되자, 자신이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를 지키고 친구를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 왈시에게 반격하기로 결심한다. 또한 데블린을 통해 종교적 권위와 불의한 시스템의 실체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뉴트는 친구들과 이 지하 세계에서 탈출하게 될까? 어둡고 잔인한 세계에서 세뇌 받다시피 살아오던 한 소녀가 정의에 대해 눈을 뜨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리즈 하이더 (Liz Hyder)는 작가이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창작 워크숍 리더이다. 2018년 모니악 모어 에머징 어워드에서 신인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는 희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Channel 4에서 방영될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중이다.

제목 : PONY CLUB SECRETS 1: Mystic and the Midnight Ride  
가제 : 조랑말 클럽의 비밀1: 미스틱과 한밤의 말타기  
저자 : Stacy Gregg  
출판사: HarperCollinsChildren'sBooks  
발행일: 2014년 1월 2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성장 소설



\* "위대한 꿈을 꾸는 소녀들을 위한 완벽한 선물" - 「더 북 셀러」

열두 살 이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말을 가장 사랑하는 소녀이다. 특히 슈발리에 포인트 조랑말 클럽에서 이지가 훈련 시키고 있는 미스틱은 그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말이었다. 하지만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이지는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된다. 이 책은 슈발리에 포인트 조랑말 클럽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시리즈 중 제 1 권이다.

이지와 그녀의 친구들 스텔라, 케이트는 함께 경기에 나갈 말들을 단장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지 역시 자신과 함께 경기에 나갈 말인 미스틱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 몰래 고삐를 채우기 위해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눈치 빠른 미스틱은 이지의 손에 들려있던 고삐를 보더니 놀라서 쇠삭 소리를 내며 재빨리 그 곳을 벗어났다. 하지만 이지가 애타는 마음으로 풀 한 포기 손에 쥐고 미스틱의 이름을 부르자 착한 그 말은 다시 이지에게로 순순히 돌아왔다. 이지는 그런 미스틱을 사랑할 수 밖에 없었다. 미스틱은 결코 젊은 말은 아니었다. 구부러진 등 부분으로 보아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태우고 다녔던 것 같았고 몸에 난 반점이 흐릿해진 것으로 보아 꽤 나이가 많은 듯 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진중한 성품을 가진 말이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가장 친한 친구 스텔라의 말 코코나 케이트의 토비와는 달리 멋진 검은색 말이 아니라 회색 말이었기 때문에 털 관리가 더 쉽지 않다는 점이였다. 게다가 스텔라와 케이트는 자신과 미스틱과는 다르게 각자의 말과 서로 너무 잘 어울려 보였다. 오늘 아침, 이지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곳에서 경기가 열리는 곳까지 가는 길은 일반 도로와 달리 험난한 곳이었고 운전자가 말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전속력으로 달릴 경우 안에 있는 말들이 놀라기라도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만큼은 말 전문가이자 이지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의 스승인 톰 애버리가 말들을 경기장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잘 나가는 승마 선수였지만 경기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선수 생활에서 물러나 슈발리에 포인트 조랑말 클럽에서 승마를 가르치는 수석 강사가 되었고 국제 말 보호 협회에서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말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경기가 열리는 날, 이지는 한번도 이 클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오늘 경기는 이 지역의 말을 타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행사였고 저마다

자기가 속한 승마 클럽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지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낯선 여자애 하나가 자기와 같은 클럽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옆에는 환상적인 황금빛 털을 가진 하얗고 예쁜 말이 서 있었다. 스텔라의 말에 따르면 그 심술 맞아 보이는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막 이 지역으로 이사온 나타샤 터커라는 여자애였는데 이번에 이지와 같은 클럽 단원이 된 소녀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나타샤는 경기장 아래로 비닐 봉지를 날리는 등 고의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었다. 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화까지 날 정도였지만 일잔 승마 시험에 참여 하기 위해 서둘러 미스틱을 준비 시켰다. 마침내 심판이 신호를 보내고 이지는 미스틱과 경기장에 서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안타깝게도 미스틱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다른 쪽으로 종종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함께 출발 선 위에 서있던 말들은 일제히 움직임을 멈춰버렸다. 이지는 결국 승리의 단상에 오르지 못했고 1 등 자리에 올라서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케이트와 목에 우승자 목걸이를 걸고 있는 토비를 바라보며 그저 축하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갑자기 얼굴을 잔뜩 일그러진 나타샤가 이지에게 다가오더니 이지가 미스틱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자신의 말인 골드러시가 놀라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이지와 미스틱을 모욕하려 했다. 이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런 나타샤에게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고 그녀는 금방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다음 순서는 장애물 뛰어넘기 시험이었다. 이지는 긴장을 놓지 않고 차근차근 경기에 임했고 미스틱 역시 이지가 이끄는 대로 순조롭게 마지막 장애물까지 완벽히 통과했다. 이지는 이 경기에서 2 등을 차지 했고 3 등은 바로 나타샤였다. 이지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있을 때쯤 갑자기 나타샤의 말인 골드러시가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했고 나타샤가 소리를 지르며 채찍을 휘두르자 겁에 질린 그 말은 다른 말들 토비와 코코에게도 달려들었다. 결국 세 마리 말들은 주인에게서 벗어나 누군가가 실수로 열어 둔 목장 문을 향해 달려 갔고 당황한 사람들이 그들을 막기 위해 일제히 달려 갔지만 말들의 속도를 인간이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로 위로 달려간 말들은 이미 차와 여러 번 부딪힌 상태였고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되어있었다. 이지는 그 도로 위에서 차들을 살피며 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엄청난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스틱이 다른 말들과 이지를 대신해 커다란 트럭을 몸으로 들이 받은 것이다. 며칠 만에 병원에서 깨어난 이지는 미스틱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말들을 구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큰 슬픔에 빠져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후 이지의 스승인 톰이 자신이 구조해 온 블레이즈라는 말을 이지가 직접 훈련시키도록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미스틱이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미스틱은 정말로 이지에게 돌아 온 것일까? 동물과 감동적인 교감과 한 소녀의 성장담이 돋보이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스테이시 그레그 (Stacy Gregg)는 2015 년 뉴질랜드 베스트 셀러 목록에 올랐던 『The Girl Who Rode the Wind』 『The Island of Lost Horse』 의 저자이다.